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회중 성경 공부 자료

저자

존 윌리엄스 목사

교회 관계 디렉터 및 채플린 오스틴 칼리지 •
셔먼, 텍사스

주관

기독교 교육 사무처

미국장로교 선교국
미국장로교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존 윌리엄스 목사 저술
채플린 및 교회 관계 디렉터,
오스틴 대학, 셔먼, 텍사스

저작권 © 2022 미국장로교 선교국 산하 기독교 교육부와 UKirk 학원 사역

성경은 개역 개정판에서 인용함
저작권 © 1989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기독교 교육 분과

이 자료는 2022년도에 UKirk 학원 사역부가
미국장로교 선교국 산하
기독교 교육부와 협력하여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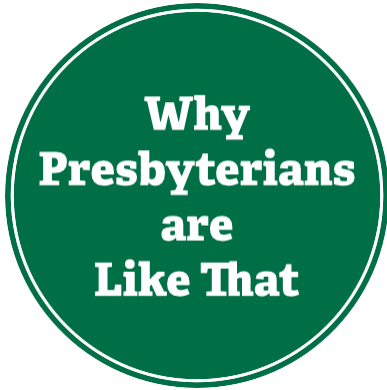
대학 성경공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자료들은
www.ukirk.org 또는

<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resource/why-presbyterians-are-like-that/>에서 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의 일부분은 특별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교회, 특별 프로그램, 강의 시에 예배나 교육을 위해 복사해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든 또는 간접적으로든 판매할 수 없다.



Presbyterian Mission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차 례

서론 및 개요.....	4
1. 성경.....	12
2. 은혜.....	25
3. 응답.....	36
4. 지성.....	45
5. 바로 지금.....	57
6. 정의.....	68
7. 죄.....	79
8. 장로교인.....	92
9. 희망.....	102
10. 겸손하게.....	116
부록 : 참조 구절 - 미국장로교.....	134
신앙 고백서와 규례서	



서론 및 개요

다음은 장로교인이 왜 장로교인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련의 성경 공부입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장로교인들은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에 명시된 신앙을 확언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믿습니다.

-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 예수님에게도 우리 모두와 같이 한 인간 어머니가 계셨으며,
-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이들과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독특하게 관련되어 있고,
- 그는 모범적인 삶을 사셨고,
- 부당하게 배신당하고 처형당했고,
-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죽으셨고,
- 부활절에 부활하셨고,
- 우리의 살아 계신 주님으로 남아 계십니다.

장로교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구별됩니다. 장로교인이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독교 신앙의 요소를 강조하는 유일한 교단은 아니지만, 이러한 공통적인 강조점과 주제가 우리를 다른 기독교 가족과 구별되게 하는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의 사실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1

**기도하며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장로교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From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written by Rev. John Williams, Ph.D. Chaplain and Director of Church Relations Austin College, Sherman, Texas. Copyright © 2022 by the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in the Presbyterian Mission Agen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UKirk Collegiate Ministries.

서로에게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 생각과 통찰을 공유하면서
-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로교인들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구절을 같은 방식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맥에서 벗어난 한 구절이 반드시 성경의 모든 권위를 담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기에 성경이 항상 가장 좋은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장로교인인가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시리즈의 첫 번째 성경 공부인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4:6, 이사야 9:6, 사도행전 15:1-21을 공부하며 장로교인이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2

은혜는 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개인이 해야 할 일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구절이 있지만, 장로교인들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왔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받을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어떤 제안도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 우선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안전(구원)하다고 믿습니다.

"왜 장로교인인가" 시리즈의 두 번째 공부인 "은혜"에서는 에베소서 2:4-10과 누가복음 10:25-37을 통해 은혜의 개념을 살펴볼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에 대해 응답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생각, 즉 개인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면 우리의 행동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응답하도록 끊임없이 초대하고 힘을 실어 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때 우리를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 즉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지만, 개인으로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의 책임(responsibilities)은 바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능력(response-abilities)"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 항상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응답을 합니다.

이 시리즈의 세 번째 공부인 "응답"에서는 누가복음 17:11-18과 누가복음 19:1-8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뇌, 즉 지성을 주셨고 우리가 그 지성을 사용하길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장로교인은 말이 많고 글을 잘 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6세기의 개신교 종교개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사건, 신학적 토론, 논쟁을 통해 장로교와 다른 개신교도들은 성경을 모든 기독교인의 최고 권위(교회 공의회나 개별 지도자의 선언과 판단이 아닌)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의무와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장로교인들은 문해력을 중요시하고 장려하며 결국에는 교육 전반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묻고, 배우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유지하신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세상에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묻고, 배우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도 과학, 문학, 역사 등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척하라고 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 시리즈의 네 번째 공부인 "지성"에서는 야고보서 5:13-20, 창세기 1:26-31; 2:18-19, 시편 19편을 공부하면서 성경적 신앙과 지적인 완전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5

우리는 사랑받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이미. 바로 지금.

장로교인들은 함께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왔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사랑받고, 재능이 있고, 유능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여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재능 있고 유능한 자녀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결코 위태롭지 않으며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리즈의 다섯 번째 과인 "지금 바로"에서는 요한복음 1:12, 마태복음 25:41-46, 이사야 43:4, 예레미야 29:11, 요한일서 3:1, 베드로전서 4:10, 로마서 12:6a, 시편 8:1-5, 에베소서 2:8-10, 시편 139:7-8, 로마서 8:38-39 등 성경 전체에서 모순적으로 보이는 여러 구절을 학습하며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

하나님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라고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장로교인들은 함께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돌보도록 부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과부, 고아,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부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구절(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성경 구절)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한 응답은 항상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시리즈의 여섯 번째 공부인 "정의"에서는 신명기 10:17-19, 마태복음 25:31-40, 아모스 5:21-24, 예레미야 29:4-7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상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7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로교인들 역시 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첫 두 인간이 다음의 일을 했다는 창세기 이야기에 기초하여,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인식합니다:

-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한 의존을 부정합니다(과일),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합니다(비난),
- 서로를 분리하고 (무화과 잎),
-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합니다(숨기).

개인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삶에서, 이 세상에서, 매일 우리는 의존의 부정, 책임의 부정, 서로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를 목격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모두에 대한 진실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과인 '죄'에서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이야기를 로마서 3장 23절, 요한일서 1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을 추가로 참조하여 자세히 살펴봅니다.

8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성령께서 우리 무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집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응답하여 함께 신실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우리 중 누구도 특정 상황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 은사 및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과도한 조직과 위원회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종종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조는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상기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장로교 운영 체제와 조직을 잘 활용하면 교회 전체가 각자의 특정한 상황을 넘어 하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에 주신 은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여덟 번째 공부인 "장로교인"에서는 사도행전 15:19, 22-29, 로마서 3:23, 미가 6:8, 베드로전서 4:10, 마태복음 18:20, 고린도전서 12:4-11을 공부하며 권위와 성령에 대한 장로교의 독특한 이해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9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장로교인들이 기도하며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에 계속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이 실재하지만 또한 부활이 참된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부르고 붙드시고 힘과 영감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야기에 참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시리즈의 아홉 번째 공부인 "희망"에서는 하박국 1:1-4, 2:1-3, 출애굽기 20:1-17을 공부하며 현실 세계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 논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 신앙 공동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 공동체에 국한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종교를 가진 다른 공동체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예: 에스라 9:1-4 및 느헤미야 13:23-25 참조). 신약성경, 특히 요한복음에는 기독교인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요한복음 3:16 및 14:6 참조). 그러나 점점 더 다양한 맥락에서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와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무한한 것에 대해 겸손하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우리가 완전히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광범위하다고 믿습니다.

이 시리즈의 열 번째 공부인 '겸손하게'에서는 요나서 전체와 미가서 6장 8절, 창세기 9장 13~17절을 읽고 이 구절들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인지 토론합니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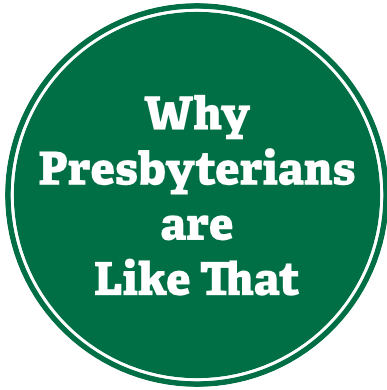
다음은 장로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장로교적 주제에 기초한 대화로 초대하기 위한 10가지 성경 공부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를 위한 참고 사항 및 제안

- 인도자는 공과 전체를 미리 읽어서 어떤 구절과 주제가 공부의 일부가 될지 파악해야 합니다.
- 이 공과는 여러 참가자와 다양한 목소리를 위한 것입니다. 적절한 경우, 그룹 구성원 개개인에게 다음 구절과 단락을 읽게 하세요.

구절과 단락을 소리내어 읽게 합니다.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 **다음의 각 과에는 토론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 각 과의 특정 주제에 기초해 참가자들이 "장로교 성경 공부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실천 방안"의 간결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 **다음 성경 공부 중 일부는 두 개 이상의 세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7과("죄"), 9과("소망"), 10과("겸손하게"). 전체 시리즈를 완료하려면 12회 또는 13회의 세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성경

기도하며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 어떤 것이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다고 믿기에 장로교인입니다.

이 과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음 구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장로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출애굽기 34:6
- 이사야 2:9
- 사도행전 5:1-21

여는 기도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내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
당신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저희와 저희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통해 말씀하소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저희와 세상을 향한 당신의 뜻과 일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지역사회, 더 큰 사회에는 성경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수세기 동안 온갖 식민주의, 잔인함, 불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어 온 구시대적이고 반지성적인 미신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의심 없이 순종해야 하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장로교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게 신실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정기적으로 공동체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 서로의 생각과 통찰을 공유하면서 경청합니다.

과거에 장로교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오용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노예제를 옹호하고,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평가 절하를 정당화하고, 다른 형태의 개인적, 제도적 불의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기도하는 공동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왔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틀어 장로교인들은 특히 지배적인 문화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얻고 공유한 통찰력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장로교인들은 종종 성경을 사용하여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간과되고 평가절하되고 무시되어 온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장로교인들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구절을 같은 방식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성경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충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휘와 범주를 제공하는 공통의 권위 있는 텍스트 세트를 갖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장로교인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확신시켜주는 위로의 언어로서 **목회적으로** 성경 구절을 사용합니다.

- 때때로 장로교인들과 다른 기독교인들은 성경 구절을 **묵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언어와 이미지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인과 전체의 응답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예배, 교제, 연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도록 성경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경 묵상은 교회 안팎에서 이웃을 대할 때 정의, 친절, 겸손을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미가 6:8; 예레미야 29:7 참조**).
- 장로교인들은 때때로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히브리어 성경(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에 묘사된 언약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약성경에 정의되고 묘사된 교회의 일원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는 특정 텍스트가 쓰여지고, 읽히고, 해석되고, 보존된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16세기에 장 칼뱅은 이렇게 썼습니다:

노약자나 눈이 침침한 사람이나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책 한 권을 그들 앞에 내밀면, 그들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두 단어를 거의 해석할 수 없다. 하지만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그들은 명확하게 글을 읽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우처럼, 성경은 우리 마음 속에 혼란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으고 우리의 둔함을 분산시켜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장 칼뱅, 기독교 강요 I.vi.1)

장로교인들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것들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장로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 자신 너머에서 말씀이 들려오고 세상에서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인도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토론을 위한 질문

- 공동체에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 세상을 분명하게 보게해주는 안경으로 성경을 생각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

성경 속으로

1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구약 성경 구절 몇 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절은 모세가 십계명의 새 사본을 구하기 위해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기 위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모세는 첫 번째 사본을 부숴버렸습니다(출 32:19 참조). 이 문맥에서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지만, 모세가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하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풍성하다."*

위의 구절처럼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서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신성한 이름인 "야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I Am)"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출애굽기 3:14 참조).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이 일종의 신성한 자기 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여섯 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17, 시편 86:15, 시편 103:8, 시편 145:8, 요엘 2:13, 요나 4:2**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신조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일종의 정의입니다. 이 단어들은 성경의 어떤 본문도 기록되기 전에 히브리 구전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인내심을 갖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고유한 관계에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는 성경을 구성하는 모든 텍스트를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러한 확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러한 이해(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 풍성한 분)와 일치하지 않는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의문을 제기해야 하고 아마도 거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러한 고대의 이해는 인간의 죄에 대해 어떻게든 갚아주고, 만족시키고, 달래고, 보상해야 하는 분노한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역사, 시, 문학, 은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인내심이 많으시고 일관되고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텍스트를 썼습니다.

성경에서 계소해서 이야기하는 것, 모든 성경 본문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항상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는 확언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점을 기억하세요.

2

이사야 9장 6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5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많은 진지하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이사야가 이 구절을 썼을 때 예수님에 대해 쓰고 있었다고 믿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탄생에 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수 세기 후,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탄생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고 있을 때, 그들은 이사야의 언어를 기억하고 새로운 맥락에서 적절하게 적용했습니다.

텍스트는 원래 쓰여졌을 때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롭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은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 함께 기도하며 공부합니다.

특정 본문이 쓰여진 원래의 문맥을 아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그 본문이 새로운 맥락에서 의미를 표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는 성경이 교회의 삶에서 항상 기능해 왔고 지금도 계속 기능하고 있는 방식을 조명해 줍니다.

이 이야기의 몇 가지 특징은 현대 장로교인들과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흥미롭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성경의 특정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의견 불일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토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통찰력을 듣고 마음이 바뀌는 것, 더 포괄적인 옵션을 선택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행전 15: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유대교 신앙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던 초기 기독교 교회에 있던 유대인 분파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창세기 17장 11절**("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과 같은 구약 성경 구절 22개에 근거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신생 기독교 교회의 모든 새 신자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5:2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방인")에게 기독교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사도행전 13장과 14장** 참조). 그들은 할례 옹호자들과 "작은 불화와 논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과 의견은 신앙 공동체의 전통적인 회원 자격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서로 다른 경험은 성경과 전통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상당한 규모의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던 안디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교회의 "본부"로 인정되는 곳)으로 보내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과 전통의 권위와 해석에 대한 실제적인 갈등을 인식한 초대 교회의 여러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론할 질문

- 다양한 경험과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의 강점일까요?
-

사도행전 15:3

그들이 교회의 전승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 대표들과 대화할 때 특정 개인에게 교회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위임했습니다.

페니키아와 사마리아의 기독교인들, 즉 "형제자매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은 이전에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일들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5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새로운 개종자들이 성경과 전통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걱정하는 다른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허공에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리고 우리의) 성경은 신앙 공동체에 가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특정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이 새롭고 변화하는 맥락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레위기 18장 22절과 로마서 1장 26~27절을 인용하여 성소수자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들은 한 맥락에서 쓰여진 성경 구절을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심각한 의견 불일치에 직면한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서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5:7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5: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사도행전 10:45-48 그리고 사도행전 2:1-11을 볼 것.

사도행전 15: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0: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를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중 하나는 누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해가 초대 교회 내에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5: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목에 두는 것"은 멍에, 즉 믿음의 삶에 대한 공통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본질적으로 "이 새로운 이방인 개종자들이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히브리 율법을 따랐던 것보다 더 많이 따를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 행전 15: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고대의 규칙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12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읽어 보세요.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17과 21:18을 보세요).

사도행전 15: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야고보가 "시므온"을 언급할 때 그는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으며(마태복음 16:18 참조), 그의 이야기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한 경험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는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5: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록 기록된 바

야고보는 공동체 전체가 인정하는 성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할레 본문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레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구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16-18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는 **아모스 9:11-12**을 인용합니다.

야고보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할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다른 교회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성경에서 찾는 것을 멈추지 않고,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이야기한 이야기와 경험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구절(할레에 관한 구절이 아닌)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5: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베드로, 바울,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 전체에 대해 생각한 후 야고보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는 성경과 전통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할레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는 19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만, 공동체 회원 자격의 모든 기준을 없애자고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신앙 공동체의 회원 자격 제한(할례)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개념과 규칙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5: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는 본질적으로 커뮤니티 참여에 관한 다른 전통적인 규칙과 제한이 커뮤니티와 구성원의 건강에 계속 기여하기 때문에 여전히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바울, 실라의 이야기와 경험에 근거한 그의 결론은 모든 구성원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것이 교회에서 성경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때 장로교와 다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사용하여 인간 노예제를 옹호하고,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평가 절하를 정당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성경을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장로교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증거에 대한 교회의 이해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양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하고 경청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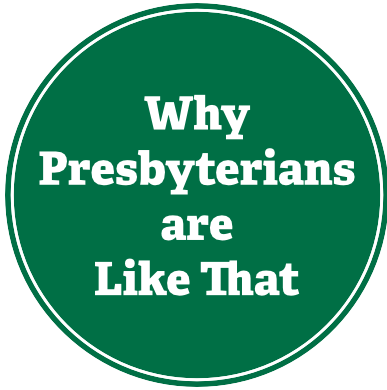
장로교인들은 성경이 우리의 삶과 여전히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의 특정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으로 이끄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숙고하며 함께 행동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일관되게 인도하십니다.

토의할 질문

-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할 정도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이 이야기에서 교회 안팎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장로교 성경공부 실천 방안

- 이 공부와 토론을 통해 장로교 성경 공부의 실천 방안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



2. 은혜

은혜는 임하는 것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이 과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음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은혜에 대한 장로교의 이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에베소서 2:4-10
- 누가복음 10:25-37

여는 기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구하거나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할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전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더 큰 사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어떤 행동을

From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written by Rev. John Williams, Ph.D. Chaplain and Director of Church Relations Austin College, Sherman, Texas. Copyright © 2022 by the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in the Presbyterian Mission Agen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UKirk Collegiate Ministries.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하며 성경을 믿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라" 또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죄인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든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야 하는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과분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구절이 있지만, 장로교인들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왔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며,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거나 얻거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한다고 믿습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어떤 제안도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 우선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안전하다고(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수 세기 동안 장로교인들은 함께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공통된 경험을 성찰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개개인의 삶과 타인과 함께 하는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도;
-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에서 충실하게 살지 않았을 때에도; 그리고
-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척하기 위해 자신을 속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일 때나 최악일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으로 남부를 방문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도착한 첫날 아침, 그는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서 베이컨, 계란, 토스트를 주문했습니다. 몇 분 후 종업원이 베이컨, 달걀, 토스트, 그리고 다른 울퉁불퉁한 흰색 무언가가 담긴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접시에 담긴 특이한 물건을 가리키며 남자는 "이게 뭐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릇입니다" 라고 서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릇' 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니다." 남성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아서 주문할 필요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많은 현대 미국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주류 미국 문화에는 자립심이 강력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강한 독립심과 자립심은 거래와 교환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치 있는 것을 받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변하는 진리, 즉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는 경제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 공짜로 얻는 것은 없습니다.
- 지불한 만큼 얻는 것이죠.
-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안전의 상태인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진술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많은 관념과 상충됩니다. "분명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겁니다. 결국, 공짜로 무언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불한 만큼 얻는 것이죠.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요구 사항도 없습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은혜는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서로를 분리하여 위험에 처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단순히 안전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속으로

1

에베소서 2:4-10을 살펴보세요:

에베소서 2:4-10

공활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문장을 잘 확인해 보세요. 이 구절은 주로 독자인 우리에게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 "우리가 우리의 허물로 죽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 "우리를 그와 함께 앉히셨고;"
- "[하나님의] 은혜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친절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 "우리를 우리의 모습으로 만드셨고;"
-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는 유일한 동사는 수동태 동사, 즉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입니다.

구원 이야기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의할 질문:

-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개념은 인간의 어떤 행동과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세상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상충되나요?
-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에베소서 2:4-10의 말씀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이 구절에서 어떤 지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2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누가복음 10:25-37)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0: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는 이 질문을 "율법사"(아마도 히브리어 성경의 세부 사항에 정통한 바리새인)가 하게 함으로써,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지역 유대인 공동체의 학식 있고 신실한 구성원 간의 만남으로 설정합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의 특정 언어에 주목하세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문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0: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으로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율법사는 정확하고 적절하게 **신명기 6:5**과 **레위기 19:18**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10: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잘했다." "네가
해냈구나."

누가복음 10: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가 율법사의 동기를 묘사한 것에 주목해 보세요.

율법사가 29절에서 이 후속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함입니다. "정당화"한다는 것은 올바른 관계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율법사가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고 말함으로써, 율법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그의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편지나 다른 문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를 바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 여러분(사실, 컴퓨터일 수도 있습니다)은 문서의 왼쪽 여백을 "정당화"하여 각 줄의 시작이 다른 줄의 시작과 일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줄은 서로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정당화"한다는 것은 올바른 관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있다고 가정하는 율법사에게 하나님과 *그가* 올바른 관계에 놓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다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여행자가 혼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고 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31-32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기적이고 무감각하고 비겁한 열간이로 치부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의 종교 생활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여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지속적인 일상적 상호 작용의 필수적인 특징으로 여겨졌습니다. 31절과 32절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쓰러져 있는 나그네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췄고 그 나그네가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민수기 19:11 참조).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일을 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1세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모범적인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현대 독자들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긴장과 적대감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나오는 이 새로운 인물이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지 않는 정치인, 거의 모든 면에서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명백하고 열렬하게 지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계속하기 전에 잠시 그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여행자를 봤을 때 *하지 않은* 행동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그는 여행자를 구할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 담당자가 없습니다. 마이크나 카메라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연설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셀카를 찍지 않습니다. 쓰러진 여행자를 구할 계획에 대한 트윗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관심을 끌기 위해 행동한다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2. 쓰러진 여행자가 충분히 종교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장신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물고기 반지, "나는 두 번째입니다" 문신, 십자가 목걸이, WWJD 팔찌 또는 세례 증명서를 확인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3. 쓰러진 여행자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선한 일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원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직무 감사"는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여행자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를 돌볼 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율법사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일까요?

누가는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아무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은 쓰러진 여행자보다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나그네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에게서 분리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출하고,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과 서로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후반부(22장과 23장)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체포되어 처형당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사마리아인보다 더 철저히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0: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값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던 여행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여행자를 계속 돌볼 수 있도록 약간의 자원을 제공하며, 앞으로 더 많은 자원을 약속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와 특히 장로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의 나그네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한때 얻어 맞아 버려졌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 띄어 보살핌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인도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 해준 것이 별로 없거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관 주인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구조된 다른 여행자들을 데려오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은사와 자원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0: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29절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예수님은 36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사마리아인이 아닌 나그네와 동일시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37

이르되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전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차리고 돌보고, 강도를 만나 버려진 사람들을 멈추고 도와야 한다는 요청으로 정당하게 해석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율법사의 질문("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율법사에게 강도를 만난 나그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한 것처럼,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한 후에야 율법사에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은혜에 응답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결론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장로교인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 중요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타락하고 죄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모든 일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4-10와 **누가복음 10:25-37**과 같은 성경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우리의 어떤 행동과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 중 누구라도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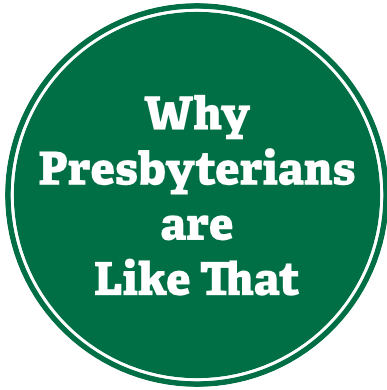
장로교인들은 은혜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토의할 질문

-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누가복음 10:25-37)를 은혜에 관한 이야기로 읽는 것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누구와 가장 동일시하나요? 왜 그런가요?
- 이 구절들(에베소서 2:4-10과 누가복음 10:25-37)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 서로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장로교 성경공부 실천 방안

- 위에서 은혜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였는데, 이를 위한 '장로교 성경 공부' 실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응답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을 불러온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이 과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음의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누가복음 17:11-18
- 누가복음 19:1-8

여는 기도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인식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인식하거나
구하거나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헌신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초대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예배, 교제, 희생, 봉사의 행동에 헌신하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From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written by Rev. John Williams, Ph.D. Chaplain and Director of Church Relations Austin College, Sherman, Texas. Copyright © 2022 by the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in the Presbyterian Mission Agen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UKirk Collegiate Ministries.

일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장로교의 강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면 믿음을 갖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에 보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지옥 보험"으로 간주합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감사로 응답하도록 초대하고 힘을 실어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 즉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지만, 개인으로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의 책임(responsibilities)은 바로 "응답하는 능력(response-abilities)"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 항상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인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응답을 합니다.

성경 속으로

1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 즉 열 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눅 17:11-18)와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눅 19:1-8)를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17:11-12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누가가 이 이야기를 썼을 당시(아마도 기원 70년경)에는 "한센병자"와 "한센병"이라는 용어가 전염성이 강한 다양한 피부 질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독자들은 이 이야기가 과학 이전의 맥락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명의 '한센병 환자'가 함께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병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과 접촉한 후 병에 걸리는 것을 당연히 두려워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리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누가 복음 17: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분명히 치료자로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열 명의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누가복음 4:31-37, 4:38-39, 5:12-13, 5:17-20, 6:6-11, 8:26-39).

누가 복음 17: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당시에는 한센병이라는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병이 낫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질병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염되지 않았고 공동체의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2-8절과 14장 2-32절에는 제사장들이 나환자들을 검사하여 그들이 회복되어 안전하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구절 끝에 나오는 문법에 주목하세요. 누가는 한센병 환자들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고 "깨끗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치유된 열 명의 한센병 환자 중 한 명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누가복음 17: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에서 원래 청중과 독자들이 조롱하고 무시했을 사마리아인이 신실한 행동의 모범으로 제시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누가복음 17:17-1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치유된 다른 아홉 명의 나병환자들이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화를 내거나 그들을 "치유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 점에 주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기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도 열 명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도록 초대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토의할 질문:

-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예배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가 부름받고 초대받은 모든 일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1-8에 나오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19:1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을 때는 꽤 큰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이야기를 처음 읽거나 들은 1세기 청중은 삭개오가 형편없고 악취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여리고와 같은 지역을 정복할 때 정복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로마에 바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이 세금 징수원들은 일정 금액을 로마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세금 징수원이 로마인들에게 바쳐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일 때에도 그들의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3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누가는 이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아무런 언급 없이 보도합니다. 하지만 이 부유하고 죄가 많으며 키가 작아 보이는 세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별로 흥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들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그 키 작은 사람은 끈질겼습니다.

누가복음 19: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5절에서 특히 소외되고 간과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훌륭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눈앞의 길에만 집중하느라 나무 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역은 종종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자 세리, 키가 작은 사람,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죄인 등 그가 속한 범주에 따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름 있는 한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그 누구도 "청년", "유색인종", "성소수자", "신자", "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는 복잡한 일을 생각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어떤 개인도 단순히 자신이 속한 카테고리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역은 각 개인이 이름을 가진 온전하고, 구별되고, 완전하고,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와 특별한 선물(그의 집)을 나누기를 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청중에서 이야기 속으로 불러내십니다.

사역은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인식하도록 초대하고 더 큰 공동체와 은사를 나누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즉, "나무에서 내려와" 더 큰 이야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역의 수혜자가 아니라 사역의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주목받고,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자신의 은사를 나누도록 초대받은 것이 기뻐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은 좋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9:7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것은 삭개오를 편리하게 넣어 두었던 상자에 다시 넣으려는 삭개오의 촌스러운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를 재능 있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키가 작고 부유한 죄인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웃들의 불평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촌스러운 이웃들에게 "아니,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고쳐줄 거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시하십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걸 보세요:

누가복음 19: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는 이 이야기의 해피엔딩입니다.

심술긋지만 정당한 원한을 품은 이웃들로부터 소외된 삭개오는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의 선물을 나누라는 초대를 받은 후 예수님께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자신이 어지러운 곳을 청소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의 집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어지러운 것을 치우겠다고 서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아보고 그의 집에 오셨습니다.

삭개오의 행동 변화는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갚으려는 그의 동기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꾸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응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은사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삭개오는 주목받고 이름이 불리고 자신의 은사를 나누도록 초대받은 경험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예수님 사역의 동역자로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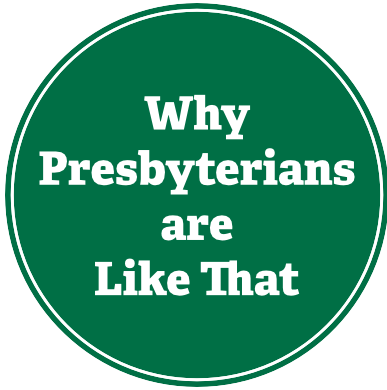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감사에 찬 응답을 하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초대한다고 믿습니다.

토의할 질문:

- 감사에서 비롯된 행동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을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 감사와 자기 이익의 구별이 은혜의 개념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사역의 수혜자가 아니라 사역의 동역자로 생각할 수 있었나요?
- 이 구절들(17:11-18과 19:1-8)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요?
- 서로에 대해서는요?

장로교 성경공부 실천 방안

- 이 과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함으로써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를 놓고 볼 때 '장로교 성경공부'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4. 지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뇌를 주시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셨음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이 과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음 구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교육에 대한 장로교의 강조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 야고보서 5:13-20
- 창세기 1:6-31
- 창세기 2:18-19
- 시편 19

여는 기도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성의 은사를 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설명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신감, 용기, 헌신, 연민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두뇌를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From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written by Rev. John Williams, Ph.D. Chaplain and Director of Church Relations Austin College, Sherman, Texas. Copyright © 2022 by the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in the Presbyterian Mission Agen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UKirk Collegiate Ministries.

장로교는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사건, 신학적 토론, 논쟁을 통해 장로교와 다른 개신교도들은 성경을 모든 기독교인의 최고 권위(교회 공의회나 교황과 같은 개별 지도자의 선언과 판단이 아닌)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고 연구할 의무와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장로교인들은 문해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장려하며 교육 전반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묻지 말아야 할 것, 배우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유지하신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이나 세상에는 개인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일반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뇌를 사용해야 한다는 장로교의 강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 시기와 현대 기독교인들이 읽고 연구하는 상황 사이의 역사적 거리로 인해 이해와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1

그 한 예가 야고보서 5:13-20입니다.

야고보서 5:13-16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장로교인들은 이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고 헌신적인 동료 장로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의 기도로 힘을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고통받거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로교인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사에게도 갑니다.

야고보서와 함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의인의 기도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좋게 들리지만, 장로교인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17-18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열왕기상 17-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19-20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기도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3년 넘게 비를 멈추게 하신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모두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고 왜 병이 낫는지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유전학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이유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비(그리고 모든 날씨)는 물의 특성, 지구의 궤도와 자전, 때로는 독특한 지질학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병자를 살리는 믿음의 기도와 엘리야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3년 넘게 비를 그치게 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구절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지역에 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내린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그의 친구들이 충분히 기도해주는 사람들만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대해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창세기 1:26-31과 2:18-19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26절까지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신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창세기 1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바빴습니다.

최초의 인간 창조는 의도적이었으며 신중하고 세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글을 쓰고 이야기하는 데 평생을 바쳐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신학 주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현대 장로교인들과 다른 신앙인들이 자원이 부족하고 빈곤이 만연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적절하며, 아마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임신했다"는 말이 항상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를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잘못된 노력이 어떻게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환경 재앙을 초래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29-30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9절과 30절에는 육식 동물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남성 *과*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임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은 성별 이분법을 가정하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곳(특히 "내시"를 언급하는 곳)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넘어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27절의 분명한 교훈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성경적 제안은 불과 몇 구절 뒤에 나옵니다.

창세기 2: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대부분은 그 후에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창세기 2장 19절**은 종종 간과되어 자세히 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2: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구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9절에서 하나님은 새와 육지 동물을 만드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육지 동물과 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점은 이러한 생물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져와서 [인간]이 뭐라고 부를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구절은 계속해서 "[인간이]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이 그 이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이 개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은 성경의 50번째 구절입니다. 그리고 처음 49절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는 창세기의 첫 장에 묘사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완전히 알지 못한 채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못하는 초능력의, 칼빈주의적이며 강박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사물에 대해 생각하고 사물에 영향을 미치고 사물이 어떻게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한 발 물러서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것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아담의 능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현재 진행 중인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뇌를 사용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토의할 질문:

- *하나님께서 아담과 모든 인간에게 실제 결과를 초래하는
실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생각의 함의는
무엇일까요?*
-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위협이 되나요? 왜 그런가요?*

3

이제 시편 19편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 19:1-6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19편의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그들과 우리의 능력에 대해 분명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의 파노라마(1-2절), 광활한 대지(3-4절),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5-6절) 등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증거입니다.

시편 19편의 첫 여섯 구절에서 우리 모두는 경외심과 경이로움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전체 물리적 세계의 질서와 아름다움, 일관성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에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이 시편의 처음 여섯 구절은 세상으로부터 배우라는 부름입니다.

토의할 질문:

-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어떻게 STEM(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 연구와 직업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

이제 다음 내용을 지켜보세요:

시편 19:7-14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1-6절에서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증거를 지적한 후,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과 법령의 중요성과 가치(7), 여호와의 교훈과 계명(8), 여호와의 경외와 규례(9)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밖으로 나가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고 세상에서 배울 모든 것을 배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 우리는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율법과 법령과 교훈과 계명과 규례를 접하게 됩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세상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보고 생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앞서 읽은 5장의 구절에서 야고보서 저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야고보서 저자는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고, 왜 낫고, 왜 비가 오는지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고보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사랑스럽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야고보는 고난과 기도의 모든 예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과 서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때, 가장 나쁜 때, 성취, 배움, 삶 전체가 항상 하나님과의 삶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간단히 말해,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서로를 돌보도록 우리를 항상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관련성은 야고보가 몰랐던 것을 우리가 모르는 척하는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과 기상학에 대해 야고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기뻐할 때, 아플 때, 우리 중 누군가가 힘들어 할 때마다 그 진리를 서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관계 속에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장로교인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말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을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야고보서의 주제와 완전히 일치하는 메시지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관심사는 독자들이 믿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20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진지하게 대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배우고 "서로를 위해"(베드로전서 4:10의 언어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것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이 건강, 비, 그 밖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충실히 공부한다고 해서 교회 문 앞에서 우리의 두뇌를 점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배우고, 배운 것을 항상 "서로를 위해" 사용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일입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뇌를 주셨고 우리가 두뇌를 사용하길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토의할 질문:

- 문해력과 교육에 대한 장로교의 초점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 교회의 주간 생활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 더 큰 공동체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으로는요?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뇌를 사용한다" 장로교적 관심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그런 지적인 강조의 위험이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구절들(야고보서5:13-20, 창세기1:26-31, 창세기2:18-19, 시편 19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 서로에 대해서는요?

장로교 성경공부 실천 방안

- 장로교가 문해력과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로교 성경 공부'를 가장 잘 실천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



5. 바로 지금

사랑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안전하다고 믿고 있기에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이미. 바로 지금.

이 과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음을 참조하여 우리가 사랑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얻고, 안전하다는 확신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 마태복음 25:41-46
- 이사야 43:4
- 예레미야 29:11
- 요한일서 3:1
- 베드로전서 4:10
- 시편 8:1-5
- 에베소서 2:8-10
- 시편 139 : 7-8

여는 기도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의 시간을 마주할 때,
 우리가 사랑받기 전에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랑받고, 재능 있고, 유능하고, 안전한 자녀라는 성경의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From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written by Rev. John Williams, Ph.D. Chaplain and Director of Church Relations Austin College, Sherman, Texas. Copyright © 2022 by the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in the Presbyterian Mission Agen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UKirk Collegiate Ministries.

우리의 교회들과 교단 내에는 문맥에 맞지 않게 인용된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어떤 이들은 성, 성 정체성, 종교적 믿음 또는 기타 요인에 대해 변화하여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로교인들은 함께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를 사랑해 왔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여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 있고, 안전한(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결코 위태롭지 않으며,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 있고, 안전한 자녀라는 우리의 지위가 항상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1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41~46**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의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친숙한 말씀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경 전체를 연구한 결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도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사랑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 있고, 안전하다는 점을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사랑 받음

이사야 43장 4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43:4

...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구절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위로와 확신의 말씀은 원래 유배되어 고난을 당하는 특정 공동체(이스라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히브리 신앙 공동체는 이 구절과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이 말씀을 보존해 왔습니다.

장로교인들과 다른 기독교인들도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이 전해진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참고로 이 구절을 영어로 더 잘 번역하면 "*너희들 모두는 내가 보기에 귀하고, 영광스럽고, 너희들 모두를 사랑한다.*"가 될 것입니다.

공식적인 영어의 한계 중 하나는 2인칭 단수 대명사와 2인칭 복수 대명사가 "당신"으로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성경 구절을 읽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 서로 다른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개인을 지칭하는 경우와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예레미야 29:11**을 읽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29: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많은 진지하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개인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를 위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레کم"입니다. "알레کم"은 2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이 구절을 더 잘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여러분(y'all)"이 2인칭 복수 영어 대명사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4절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예레미야 29장에서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신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3:1의 첫 줄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3: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구절은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 커뮤니티에 기록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요한일서가 특정 기독교 회중을 위해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아마도 기원후 100년 경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 후 수 세기 동안 교회가 이 말씀을 보존해 온 것은 그 초기 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 사이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하도다*"라는 말씀에 위로와 확신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지위가 의심스럽거나 우리가 열망해야 하거나 획득해야 하는 것이라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확언합니다. 이미. 바로 지금.

우리 모두.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토의할 질문.

-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다는 이 생각과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심판과 처벌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 *은혜에 관해 이전에 논의한 내용이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다는 장로교의 확언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3

은사를 받음

베드로전서 4:10를 고려해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구절을 풀어 봅시다.

"청지기"

장로교라는 단와 마찬가지로 "청지기"라는 단어는 스코틀랜드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스코틀랜드의 유목민 부족이 가장 먼저 길들인 동물은 돼지였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돼지는 스코틀랜드에서 번성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기

때문이죠. 돼지는 거칠고 험준한 스코틀랜드 지형에서도 왕성하게

번성했습니다.

부족원들은 돼지를 키우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돼지는 좋은 육류

공급원이었고, 가족과 다른 부위는 유용했으며, 여행하면서도 고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스코틀랜드인들은 결국 돼지를 기반으로 경제 전체를 발전시켰습니다. 누구나 돼지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키우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돼지를 돌보는 데는 시간과 공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별 가족들은 고기와 가족을 얻기 위해 돼지를 기르는 것도 좋지만, 돼지를 돌보기 위해 해야 할 다른 일들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족들은 모든 돼지를 함께 키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돼지를 돌볼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들은 돼지를 잘 돌보면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지만, 모든 돼지를 책임지는 사람이 자기 소유가 아닌 돼지를 잘 돌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각 부족은 책임감 있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을 찾아내어 모든 돼지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돼지를 키우는 구역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돼지 우리(sty)'의 '관리인(warden)', 즉 '돼지 우리 관리인(sty warden)'이 되었습니다.

"스티 워든 (sty warden)"이라는 말에서 "스튜어드(steward)"와 "스튜어드십 (stewardship)"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의 맥락에서 "청지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족 전체가 돼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인들은 베드로전서 4:10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섬기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족 전체가 돼지를

흥미롭게도 1371년부터 1603년까지 스코틀랜드의 왕과 여왕, 1603년부터 1714년까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과 여왕의 성은 "스튜어트"였습니다. 같은 어근을 가졌습니다. 스티 워든. 이 수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멋진 퀴즈입니다.

받고 맡기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우리 각자에게는 서로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6a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습시다)를 참조하세요.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에서 함께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모든 일에 관해서는 우리 중 누구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며, 우리 각자는 그 중 일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중 일부만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우리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이 구절은 모든 독자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 모두가 은사를 받았으며, 우리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개인과 단체의 은사는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토의할 질문

- "각자가 가진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의 삶이나 회중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 그런 초점이 회중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그런 초점이 교회 재산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4

능력있음

시편 8:1-5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 8:1-5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많은 증거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는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는 것, 특히 특정 인간이라는 것이 선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라는 중요하고 심오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개인으로서나 종으로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의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방식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장로교인들은 또한 우리 인간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긍정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영망으로 만들고 서로에게

너무 잔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용기, 연민, 희생, 봉사, 아름다움의 진정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장로교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훌륭하고, 선하고, 충실하고, 삶을 긍정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

안전함

에베소서 2:8-9을 살펴보세요.

에베소서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장로교인들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게서 분리시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창조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장로교의 이해는 이 시리즈의 일곱 번째 성경 공부인 "죄"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게서 분리되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창조되고 살도록 의도된 대로 살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 덕분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일을 망쳐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6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이나 후에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139편**의 두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 139:7-8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스울"은 우리가 죽을 때 가는 곳을 말합니다.

시편 139편 8절의 거대하고 간과하기 쉬운 의미는 우리가 죽기 전이나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도대로 살지 않을 때 초래될 결과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인식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장로교인들은 공동체와 개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 있고, 안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언합니다.

우리 모두.

이미.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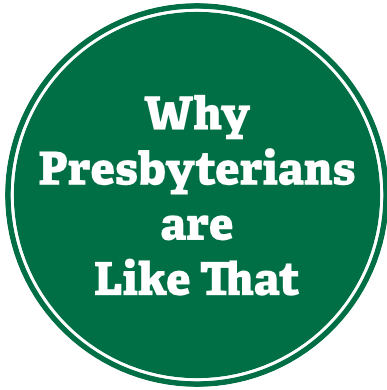
사랑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 있고, 안전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믿기에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이미. 바로 지금.

토의할 질문

-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어떨 것이라고 상상하시나요?
-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삶은 어떨까요?
- 능력에 대해서는요?
- 안전에 대해서는요?
-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랑 받고, 재능 있고, 유능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진지하게 확언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진실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웠나요?
- 서로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웠나요?

장로교 성경공부 실천방안

- 장로교인들은 이미 사랑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 있고, 안전하다고 믿는다는 이 성경공부의 접근방식에 비추어볼 때, '장로교 성경 공부'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요?
- 이 과에서 역사적 맥락과 말씀 공부에 대한 토론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6. 정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기에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이 과의 참가자들은 다음 구절을 공부하면서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것입니다.

- 신명기 10:17-19
- 마태복음 25:31-40
- 아모스 5:21-24
- 예레미야 29:4-7

여는 기도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과 지역사회에 우리 삶과 지역사회에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인종차별, 성차별 또는 다른 형태의 구조적 불의를 경험합니다.
간과되거나 무시당하거나 착취당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에 참여하고 함께 삶을 이어갈 때, 모든 사람과 지구 전체를 위한 정의를 향한 주님의 긴급한 부르심을 저희 가운데서, 그리고 저희를 통해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From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written by Rev. John Williams, Ph.D. Chaplain and Director of Church Relations Austin College, Sherman, Texas. Copyright © 2022 by the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in the Presbyterian Mission Agen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UKirk Collegiate Ministries.

정의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며 모든 장로교회의 관련 관심사입니다. 정의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요구를 인식하지 않고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웃 중 일부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우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 이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유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도 거의 확실합니다.

장로교인들은 함께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돌보도록 부름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신명기 10장의 과부, 고아,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부터 마태복음 25장(및 기타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 갇힌 사람과 동일시하신 것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한 응답은 항상 개인적 또는 공동체의 어려움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을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속으로

1

신명기 10:17-19을 보세요.

신명기 10: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10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긴 연설의 일부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는 언약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명기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후 그 언약 공동체(이스라엘)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해 신실하게 살기 위한 일종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여기 1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라헬의 하나님인 야훼(출애굽기 3:14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대로)가 고대 세계의 수많은 경쟁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야훼는 *유일한* 신입니다.

야훼가 스스로를 "*단 하나의* 위대하고 위엄이 있는 신"이라고 밝힌 것은 야훼가 다른 "신들"과 어떤 종류의 전투나 경쟁을 벌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야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계십니다. 야훼에게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강력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한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이는 야훼를 당시 그 지역에서 숭배되던 다른 '신'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들에 관한 신화와 설화에는 뇌물, 배신, 속임수 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10:18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요구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 나그네"가 필요한 것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성경적 논의는 대부분 언약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모든 사람)을 관대함, 동정심, 공정성, 환대, 사랑으로 대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잠깐 살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에 따르면 정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는 18절에 나오는 야훼께서 *실행하신다*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의

18절은 위대하고, 강력하고, 놀랍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공의를 집행하신다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되고 쓰여진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위, 전망, 환경은 주로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성인 남성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는 자신을 돌봐줄 성인 남성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취약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편파적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줄 성인 남성이 없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0: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출애굽기 1장~12장** 참조). 모세는 그들이 연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던 시절에 주목받고 돌봄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연약하고 간과되는 사람들을 알아차리고 돌보라고 당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신명기가 기록된 사회처럼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장로교인들은 무시당하고, 평가절하되고, 소외되고, 위험에 처한 모든 이웃을 주목하고 돌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토의할 질문:

- *지역사회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정의는 우리가 부름받은 일이라는 인식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5:31-40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5:31-32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비유에서 예수님("인자")은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라는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거나 읽는 사람들에게는 친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서로 다른 종입니다. 양과 염소가 필요로 하는 먹이는 다릅니다. 양과 염소는 같은 무리에서 항상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따로 사육하면 양과 염소 모두의 장기적인 건강이 향상됩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은 빨래를 할 때 흰색과 색깔있는 것을 분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5:33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고대 문화권에서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문화권에서 오른쪽을 선호합니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찾아보실 수 있지만, 지금은 양을 인자의 오른쪽에 배치한 것은 양을 선호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1:3, 12:2; 베드로전서 3:22; 사도행전 7:55-56** 참조).

마태복음 25:34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은 양들의 행동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한 지지입니다.

마태복음 25:35-36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성경의 놀랍고 흥미진진하며 영감을 주는 특징 중 하나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행동-

-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 목 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 나그네를 환대하며;
- 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 병든 자를 돌보며;
- 갇힌 자를 돌보는 것-

은 거의 2000년 전 이 이야기가 처음 쓰여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충분히 타당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37-39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양들은 아마도 인자의 외침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지만, 그가 이를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 때 당황할 것입니다.

“'나를 먹이고', '나를 환영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거기 있었다면
우리가 당신을 알아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비바람에 취약하고, 집을 잃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나의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그들을 돌보는 "양들"을 분명히 칭찬합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기에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토의할 질문.

-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교회 또는 교단은 어떤 방식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비바람에 취약하고, 집을 잃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고 있나요?*
-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돌볼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3

아모스 5장 21-24절과 예레미야 29장 4-7절과 같은 다른 성경 구절을 연구한 결과, 장로교인들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으로서의 우리에게 대한 부르심에 그치지 않는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부이기는 해도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와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쳐 우리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차리고 돌보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모스 5장 21~24절을 생각해 보세요.

아모스 5:21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꽤 가혹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에는 여러 가지 축제와 기념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제와 집회 중 상당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22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른 곳, 특히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신 것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5:23-24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축제, 집회, 제물 또는 노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절한 응답입니다.

아모스 5:21-24의 요점은 이러한 행동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려는 공동체 전체의 일관된 노력이 수반될 때만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토의할 질문

-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돌보도록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4

예레미야 29:4-7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29: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는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지배적인 곳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다양한 곳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날로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이 이야기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은 다음 말씀에서 많은 관련 통찰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5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즉, "거기에 정착해 살라. 예전처럼 되기를 바라며 시간을 보내지 말라. 지금 있는 곳에서 충실하고, 온전히 존재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예레미야 29:6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가정을 이루라.

내가 가르쳐 준대로 살아라. 성경을

읽으라.

함께 뭉쳐라.

너희들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기억하라. 믿음을 지키라.

예레미야 29:7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이 있는 도시에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도 모두 소중한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세요.

모두가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살아가세요.

결론

장로교인들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의 의무가 특정 신앙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모든 다양한 공동체에서 온전하고 사랑스러운 참여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다른 지역사회의 안녕을 추구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돌보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날씨에 취약하고, 이재민이 되고, 병들고, 수감된 이웃을 대신하여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사회 구조를 해체하고 모든 이웃과 협력하여 정의롭고 친절한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적극적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장로교인은 하나님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편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데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토의할 질문

- 개인으로서, 또는 교회로서 여러분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도시의 안녕을 추구" 할 수 있나요?
-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웠나요?
- 서로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웠나요?

장로교 성경공부 실천 방안

-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장로교적 인식에 대한 이 성경공부의 접근방식에 비추어볼 때, '장로교 성경 공부'를 실천할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왜 장로교인인가" 시리즈의 첫 번째 공과에 나오는 이 문장을 기억하기에 적절한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통틀어, 장로교인들은 지배적인 문화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얻고 공유한 통찰력으로부터 특별히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장로교인들은 종종 성경을 사용하여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간과되고 평가절하되고 무시되어 온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7. 죄

장로교인이 장로교인인 것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과에서는 참가자들이 죄에 대한 장로교의 이해를 토론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창세기 전체 혹은
- 창세기 3:1-19.
- 로마서 3:23,
- 요한일서 1:8
- 로마서 5:8

여는 기도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종
당신에 대한 의존을 부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분리하고, 스스로를
당신과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때 용서 하소서. 주님의 변치않는 은혜를
상기시켜 주소서.*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
주소서. 아멘.*

From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written by Rev. John Williams, Ph.D. Chaplain and Director of Church Relations Austin College, Sherman, Texas. Copyright © 2022 by the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in the Presbyterian Mission Agen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UKirk Collegiate Ministries.

장로교인들은 성경이 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먹은 최초의 인간에 대한 창세기 이야기에서 자신과 세계를 인식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 함께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서 의존의 거부, 책임의 거부, 서로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매일 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모두에 대한 진실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화난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인들은 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와 하나님이 우리가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차이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깨어 보는 세상은 증오, 폭력, 전쟁, 학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장로교인들은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하는 세상을 분명하고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 자신과 세상에서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으로

1

창세기에 대해 잠시 생각해봅시다.

창세기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장로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한 첫 번째 "장로교인은 왜 그런가" 학습에서 논의했던 구절(출애굽기 34:6)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6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서는 아마도 "여호와라 여호와라"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신성한 이름인 "야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I Am)"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는 구약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여섯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하신

성경 학자들은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신조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일종의 정의입니다. 이 단어들은 성경의 어떤 본문도 기록되기 전에 히브리 구전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인들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인내심을 갖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자신들이 고유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기 전에 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인내심을 갖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세상은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만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이 풍성하시다면(우리가 믿는대로)

- 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서로를 실망시키고 배신하는가?
- 왜 우리는 뱀을 두려워하는가?
- 출산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 우리가 충분한 음식을 얻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 몇 세대 전에 모든 것을 파괴한 홍수는 어떻게 된 것인가?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문학과 은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던 과학 전 시대의

사람들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서, 불완전한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시도로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신실한 공동체가 세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로 읽는다면, **창세기 3:1-19**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루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 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서로를 실망시키고 배신하는가?
- 왜 우리는 뱀을 두려워하는가?
- 출산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 우리가 충분한 음식을 얻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창세기를 충실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창세기 3: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를 충실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 모음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은유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반드시 성경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이 이야기에 담긴 의미 있는 아이디어와 통찰력은 말하는 뱀이 있었다는 믿음에 달려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3:2-3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창세기 2:15-17**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구절들에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두 명의 새 인간이 선과 악의 차이를 알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이 말이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기 전에 이미 존재함)에 대해 무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선과 악"은 피조물의 모든 것, 즉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포괄하는 구어체 용어입니까? 하나님은 이 새로운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17에서 이야기하신 것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반대했습니다.

창세기 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만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는다면 하나님만큼 알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없게 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신에게 계속 의지하게 하려는 사기, 즉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값싼 계략일 뿐이다."

창세기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 그리고 아담이 뒤따라 맛있고 예쁘고 영양가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명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일을 먹습니다.

토의할 질문:

- *당신의 삶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의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죄는 적절하거나 도움이 됩니까?*

창세기 3: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은 이상한 전개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항상 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열매를 먹은 후, 그들의 알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사적인 부분"을 덮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마"가 숨기려고 시도했던 "부분"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 하와와 아담은 갑자기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취약하다고 느낍니다.

이 이야기에서 인간이 하는 두 번째 일은 서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듣고 숨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한 것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몸이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습니다.
 인간이 금지된 열매를 먹고나서 하는 세 번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토의할 질문:

- 서로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에 대한 이 표현은
 죄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실망과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도록 도와주나요?

창세기 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거대한 구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의존을 부인하고 서로 분리 된 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어디 있느냐?"입니다.

죄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세 번째 장 초반에 나타납니다. 나머지 65권의 책과
 48개 이상의 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 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죄인을 찾아 "너희는 어디 있느냐"고 묻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10

[아담]은 "내가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담, 하와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좋은 시간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부인하고, 치마를 두르고 서로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후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한 것은 알몸이었습니다.

창세기 3:11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언제부터 벗은 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비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아담은 이야기 속 다른 이를 탓합니다.

“정말 제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그 여자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저를 비난하지
말아 주십시오,”

창세기 3:1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을 비난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는 네 번째 일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 장의 첫 13 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첫 인간들을 봅니다:

-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의존을 부정합니다;
- 서로를 분리합니다;
-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합니다;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서 말을 할 줄 아는 뱀의 존재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창세기 3장 14~19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고대 문화에서 표현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본문은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존재들을 사랑하며, 자신과 서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보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구절들을 특정한 맥락에서 실제 사람들의 실제 삶에 대한 사실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읽으십시오.

- **뱀은 왜 다리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뱀을 두려워합니까?**

창세기 3:14-15

여호와 하나님은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 **출산은 왜 여성에게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가?**

창세기 3: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서투른 합리화처럼 보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제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간 성경 전체를 기도하며 함께 공부했지만, 장로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해석들을 또는 이와 같이 암시하는 해석들을 거부해왔습니다:

여자는 함께하는 삶의 모든 면에서 남성보다 열등하다;

성적 욕망은 죄와 연관되어 있다; 혹은 이성애가
모든 사람들에게 규범적이다.

-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왜 배고프고, 우리가 충분히 먹기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17-18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 우리는 왜 죽고 왜 타락합니까?

창세기 3: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복잡하고 흥미로우며 통찰력 있고 골치아픈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때때로 최초의 인간이 인간적인 일을 했을 때 과민하게 반응하고 벌을 주는 사소하고 질투심 많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인들은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하고 또 의미있는 통찰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최초의 인간들의 행동에 대한 이 이야기에는 우리를 포함하여 그

이후 모든 인간의 특징이라고 믿는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한 의존을 부정합니다.

우리 자신을 서로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요한 일서 1:8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장로교인들은 이러한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개인에게 절대적인 힘이나 궁극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 생활의 일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 받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결론

로마서 5 : 8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장로교 인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의 죄가 마지막 단어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믿습니다.

창세기 3:9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뒤를 따라오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서로를 위해 창조된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입니다.

토의할 질문:

-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 서로에 대해서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실천 방안

- 모든 인간은 의존성을 부인하고, 서로를 분리하고, 하나님과 분리하고,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다고 인식하는 장로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공부한 바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는 첫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죄인을 찾고 부르시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장로교 성경공부를 위한 가장 좋은 실천 방안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8. 장로교인

장로교인이 장로교인인 것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는 모여 있을 때 더 많은 성령이 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과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음 성경 구절에 대해서 토론함으로써 권위에 대한 장로교의 이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사도행전 15:19
- 로마서 3:23
- 미가 6:8
- 베드로전서 4:10
- 마태복음 18:20
- 고린도 전서 2:4-11

여는 기도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고 오늘날 성경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 모일 때
 주님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하는 기회,
 당신과 우리 서로가 어떻게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From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written by Rev. John Williams, Ph.D. Chaplain and Director of Church Relations Austin College, Sherman, Texas. Copyright © 2022 by the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in the Presbyterian Mission Agen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UKirk Collegiate Ministries.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와 선생님,
성경 번역가와 학자, 동료
교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동체를 이루고 지지하는 모든 이들의
 은사를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아멘.*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쉽게 간과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나 교단에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진실하고 성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와 그 특정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신앙이 각 개인을 향한 것임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을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은혜에 응답하게 부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사적인 것이 될 수 있거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경험한 사람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의 결과는 그 개인이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험의 결과는 항상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동체로 부름받고 파송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1

장로교인들은 집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응답하여 함께 신실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고 적절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특정한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 하심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은사,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장로교는 종종 거대한 조직과 위원회에 대한 집착으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장로교에는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규칙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상기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장로교 정치와 조직은 하나님께서 개인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세상에 주신 은사를 교회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왜 장로교인인가" 성경 공부 자료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중 많은 것들이 장로교에만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 정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장로교인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구별되는데, 이들이 교회 내의 권위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때문에 그러합니다.

"장로교"라는 단어는 "장로가 운영하거나, 다스리거나, 또는 장로들이 이끄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인이 교회의 삶과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토론과 결정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개인을 구별하고 위임하여, 기도하고 공부하고 심의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교회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성경 속으로

2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과인 "성경"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해당 자료는 왜 장로교인들이 성경에서 어휘와 범주를 찾아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지 파악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러 기독교 회중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서로 이야기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경을 공부했고 그들 중 몇몇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 15:19와 22-29를 생각해보십시오.

사도행전 15: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그는 할례에 찬성하는 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보는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진지하고
정중한 토론에 참여한 후 마음을 바꿉니다...

사도 행전 15:22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은
형제 중의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스를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전체 교회의 동의를 얻어" 행동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특정 교회를 대표하도록 특별히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결하지만 권위있는 편지와 함께 공의회 대표들을 개별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5:23

**다음과 같은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는 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기독교
회중에 보내집니다.

사도행전 15:24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편지의 저자들은 "우리는 아무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편지와 그 저자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가정하는지 주목하라.

또한, 많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에 대한 언급이 왜 "불안하고 불안해 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25-26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 공의회 참가자들이 왜 여성도 보내지 않았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성들이 가장 먼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참조),
기독교 교회는 여성의 은사와 지혜를 인정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도행전 15:27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리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꺼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나바, 바울, 유다, 실라를 보내어 편지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합니다."

"그들은 이곳에 있었고 공의회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고

당신도 그렇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28-29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28 절의 첫 단어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았노니

편지의 저자인 예루살렘 공의회 참가자들은 성령께서 공의회의 심의와 결론을
지시하셨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장로교인들 사이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장로교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이라는 지겹고 오래되었지만 전혀
부정확하지 않은 농담이 나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규칙과 구조에 상당히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28절**의 첫 구절(*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았노니*)은
장로교인들이 교회의 권위를 이해하는 방식을 성경에서 가장 간결하게
묘사한 것이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로교인들은 각 개인에게보다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토의할 질문.

- *성령께서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 *그것이 성령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위원회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기타 관련 성경 구절

4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의 진리와 관련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장로교인은 교회에서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무오한 권위를 어떤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주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외에 무엇이나?*)의 진리와 관련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은 '겸손하게 걷는 것'에는 때때로 동료가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이를 존중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너희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의 진리와 관련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공동체 전체와 전 세계에 유익을 주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각자의 은사를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조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의 진리와 타당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은 *함께* 예배하고, 심의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한 개인적 만남으로 인해 개인이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특정한 부르심이나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나아가게 합니다.

5

고린도전서 12장 4~11절을 살펴보면 우리 한 사람보다 우리 무리 안에 성령이 더 역사한다는 장로교의 믿음에 대한 이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4-6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지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모든 은사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그들 중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무엇이든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 중 일부는 경험이 많고, 다른 상황들에서 중요하고 적절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특히 의사 소통을 잘합니다.

고린도전서 12: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격려를 특별히 잘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돌봄에 뛰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중 일부는 일을 끝내고 일을 완수하는 데 능숙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계획을 잘 세우고 비전을 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능숙합니다.

또 사려깊게 지켜보고 잘 들어주고 입장을 옹호하는 데 뛰어난 이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11

이 모든 것은 한 분의 동일한 성령에 의해 활성화되며, 성령께서 선택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결론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며, 은사를 받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감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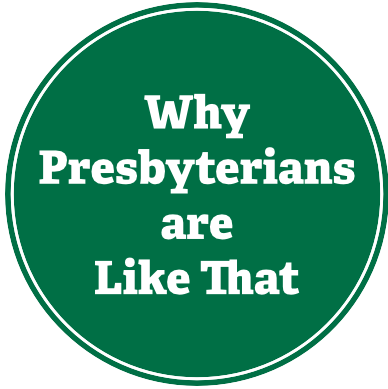
그렇기에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함께하면, 혼자일 때보다 더 많은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토의할 질문:

-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 서로에 대해서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실천 방안

-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장로교의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장로교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위에서 논의된 생각들이 장로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9. 희망

장로교인이 장로교인인 것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과에서 참가자들은 다음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장로교의 믿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 하박국 1:1-4 과 2:1-3
- 출애굽기 20:1-17
- 이사야 11:6-9
- 예레미야 31:33-34
- 계시록 21:3-6a

여는 기도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 당신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지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가 당신이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셨던 이 세상 속에서 억압, 고통, 착취, 잔인함을 볼 때 그러합니다.

불의에 맞서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연민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향한, 모든 이를 향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향한 당신 살롬의 비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당신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의도하신대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From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written by Rev. John Williams, Ph.D. Chaplain and Director of Church Relations Austin College, Sherman, Texas. Copyright © 2022 by the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in the Presbyterian Mission Agen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UKirk Collegiate Ministries.

우리 공동체, 국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낙담할 이유를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인종 차별, 동성애 혐오, 성전환 혐오, 정치적 분노, 증오 발언, 편견을 가까운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너머에서 간절한 사랑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이 현실이지만 부활절이 참된 세상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힘을 주시고, 영감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야기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고 새로운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유입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 속으로

1

하박국 1:1-4 와 2:1-3을 참고하세요.

하박국 1:1-2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알고 있는 테러, 집단 폭력, 불필요한 고통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들 각각은 쉽게 수많은 테러, 폭력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것들을 떠올려보면, 열거할 수 있는 사건들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하박국의 마음 상태를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박국 1:3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뉴스를 켜거나, 신문을 펴거나,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거나, 자신이있는
사회에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면서 책임감있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부정 행위와 문제, 파괴와 폭력, 분쟁과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박국 1:4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를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끔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정당하지 않게 보이는 결정들을 내립니다.

정부는 우리 또는 가장 취약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때로는 해를 끼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특권층에게 부당하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법을 제정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한 장로교의 희망에 대한 성경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요?

하박국은 1장부터 벌써 힘들어 보입니다.

그는 1장에서 14절에 걸쳐 하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의 삶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철저하게 나열합니다.

토의할 질문:

- 어떤 상황에서 잘못, 문제, 파괴, 폭력, 분쟁, 다툼,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가치있거나 적절할 수 있나요?

2

그런 다음 2 장에 도달하면 몇 가지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박국 2: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하나님]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징징대고 불평하고 정당한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를 낸 후, 하박국은 본질적으로 "좋아요 하나님,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뻔뻔함을 잠시 살펴보십시오.

이야기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하박국이 분노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그는 2700여 년 전의 인물이지만, 현재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것과 같은 실망과 사회적 갈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주제넘게 행동한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 인간이 가지는 가치와 특권에 대한 놀랄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에 대해 이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인 이웃(갈대아)과 무능하고 비윤리적인 왕(여호야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기원전 600년경에 이 글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어떤 식으로든 특별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귀족도 아니고, 비밀리에 신성한 존재도 아니며,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신에게 정당한 불만이 있는 심술궂고 불만스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절에 도달합니다.

하박국 2: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은 "나에게서 받은 비전을 공개하라. 모두에게 보이라. 그것을 광고판에 새겨 놓아라. 급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읽기 위해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도록 아주 크게 새겨놓아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2: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히브리어 성경(기독교에서는 구약성경이라고 부릅니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개개인이 일대일로 주고받는 대화에 대한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모세, 욥, 예레미야, 요나, 하박국 사이에는 이와 같은 대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신학적 견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훌륭한 문학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에 대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징징대고 심술궂은 하박국에게 *응답*하신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특별히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라?"

이것이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그래,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다.

기다리라."

"일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세상에 매일 침투하는 폭력, 문제, 분쟁, 다툼에 대한 적절한 대응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토의할 질문.

- *하박국에게 "지체될 것 같으면 기다리라" 고 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어떤 좌절감을 느끼십니까?*
- *여러분은 같은 교훈에서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 *좌절감과 편안함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박국에게 정해진 때를 위한 비전이 있으니 지체될 것 같으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비전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교인들은 세상의 잘못, 문제, 파괴, 폭력, 분쟁, 다툼, 불의를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럽고 최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선포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때로는 우리와 관련없이 세상 속에서 계속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새기기 위해 노력할 때" 장로교인들에게 지침을 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하실 일들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경험은 때때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만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저지르는 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이 세상과 취약하고 상처받은 주민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1-17의 "십계명"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10가지 금지 사항으로 읽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각 계명의 끝에 "또는 그렇지 않으면"을 추가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열 가지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특히 알버트 커리 윈 *Albert Curry Winn*의 *A Christian Primer: The Prayer, the Creed, and the Commandments*)은 출애굽기 20:1-17을 열 가지 약속의 목록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약속을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창세기 9장 8~17절**) 끝에 나오는 무지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창세기 12장 1~3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장 20절**)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요한복음 14장 18절**)와 같은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열 가지 약속으로 읽는 것이 십계명을 열 가지 금지 또는 열 가지 위협으로 읽는 것보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방식과 훨씬 더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봅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끔찍한 상황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따라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분명 신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조금 무서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따랐고 하나님은 그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노예가 아니지만,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다음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서 십계명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장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징징대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인내심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지령이나 위협의 목록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비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명은 속박에서 해방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쩌면 십계명은 겁에 질려 징징대는 사람들에게 "진정하라.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는 일이 끝날 때, 진실임이 밝혀질 10가지 사항이 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10가지 약속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1-3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장로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세상, 돈이나 국가, 경제 시스템, 교단,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상을 상상하고 이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출애굽기 20:4-6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디에 계시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세상을 꿈꾸며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모두가 옳은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누가 누구와 잤는지, 누구에게 물벼락을 맞았는지 걱정하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는 세상입니다.

출애굽기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장로교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세상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면서 타인을 학대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입니다.

출애굽기 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장로교인들은 누구도 몸이 아파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고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의존하는 사람들, 우리가 의존하는 사람들, 모든 이웃과 모든 피조물을 부지런히 돌보려고 노력합니다.

출애굽기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로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자신보다 뒤에 올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 있고 은혜로운 관심을 갖는 세상을 꿈꾸며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이들에게 덜 이기적이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세상입니다.

출애굽기 20:13

"살인하지 말라.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부분에서 챔피언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정당방위든, 전쟁이든, 사형이든 더 이상 살인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학문적인 문제일 뿐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출애굽기 20:14

"간음하지 말라

장로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항상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그것은 지키지 않는 약속은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출애굽기 20:15

"도둑질하지 말라.

장로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은혜롭고 관대해지는 세상을 상상하고 이를 위해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녀임을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갖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존중하는 세상입니다.

출애굽기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장로교인들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모든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심할 일이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출애굽기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장로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세상을 꿈꾸며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무언가를 가지거나 가진 것을 지키려는 것보다 나눔과 베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5

십계명을 10가지 약속,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미래에 대한 10가지 묘사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한 열 가지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원래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하나님의 열 가지 약속의 목록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의 지침으로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우리 모두는 폭력, 잘못, 문제, 파괴, 분쟁, 다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계명을 열 가지 약속으로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토의할 질문.

- 십계명을 열 가지 위협이 아닌 열 가지 약속으로 생각하면 어떤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나요?

6

십계명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장로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삶의 '비전'을 함께 써 내려갈 때, 그 장로교인들을 위한 범주와 언어를 제시하는 또 다른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1:6-9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떤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토의할 질문:

- 이 이미지들은 장로교인으로서 현실 세계에서 신실하고 희망차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1:33-34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토의할 질문:

- 예레미야 31장의 약속이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에게 어떤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계시록 21:3-6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토의할 질문:

-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말씀이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에게 어떤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토의할 질문:

-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 서로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나눈 말씀의 실천 방안

-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장로교적 인식에서 볼 때, 우리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위에서 논의한 약속, 통찰, 이미지들이 장로교인들이 이를 실천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10. 겸손히

장로교인이 장로교인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 신앙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과의 참가자들은 다음 구절을 통한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장로교적 인식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 에스라 9:1-4
- 느헤미야 13:23-25
- 요한복음 3:16과 14:6
- 요나서 전체
- 창세기 9:13 - 3:16
- 미가 6:8

여는 기도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더 다양해지는 세상 안에서 당신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성경 말씀에 감사하지만,
 우리 종교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도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우리만큼이나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긍정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모든 자녀들과 신실하고, 책임감있고,
 사랑스럽게 사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 주소서.
 아멘.

From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written by Rev. John Williams, Ph.D. Chaplain and Director of Church Relations Austin College, Sherman, Texas. Copyright © 2022 by the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in the Presbyterian Mission Agen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UKirk Collegiate Ministries.

우리 중에는 일부 종교는 "옳고"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우리 공동체의 성실하고 진지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들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일종의 "제로섬"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든지 그들이 옳든지 둘 중 하나다. 둘다 옳을 수는 없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한 후, 장로교인들은 이러한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 공동체에 국한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종교를 가진 다른 공동체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예: **에스라 9:1-4** 과 **느헤미야 13:23-25** 참조).

신약성경, 특히 요한복음에는 기독교인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요한복음 3:16**과 **14:6** 참조).

그러나 점점 더 다양한 맥락에서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와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자신있게, 신실하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우리가 완전히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광범위하다고 믿습니다.

성경 속으로

1

요나서에 대해 생각해봅시오.

배고픈 물고기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요나 1:1-2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앗시리아라는고대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현대 도시인 이라크 모술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방식을 고려해보면,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성서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므로, 야훼(이스라엘의 신)와 요나 사이의 대화 맥락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를 '우리와는 다른 이들'로 가득한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1: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 버립니다.

요나 1:4-5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것은 배에 탄 사람들 사이에 종교적 다양성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신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에 있던 화물을 바다에 던져서 그것을 가볍게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요나는 배의 선실로 내려가 누워 잠자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원들이 배가 가라 앉지 않도록 애썼지만, 요나는 낮잠 자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흠...

요나 1:6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나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폭풍에 잠재적으로 관련된 많은 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선장의 가정에 주목하십시오.

훌륭한 선장으로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특별한 신들에게 기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나 1:7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니라**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의 모든 사람들은 이 폭풍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은 과학 이전의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요나서의 저자(들)과 원 독자들은 폭풍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상학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모두는 제비뽑기가 누구의 잘못인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의심 없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소한 사항에 대해 그리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재밌습니다.

요나는 재수없게 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요나 1:8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야기하라.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요나 1:9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일어나 자신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진정 *유일한* 하나님이면서 다양한 공동체에 관여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요나 1:10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왜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과 엮인 이 극적인 사건에 우리를 끌어들이셨는가?"

요나 1:11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당신의 신은 분명히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나 1:12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구절에는 흥미로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요나는 또한 그의 하나님이 실제로 책임지고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가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 위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요나 1:13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다른 사람들은 동료 승객을 배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연민과 상호 존중의 메시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요나는 12절에서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13절에서 그렇게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요나 1:14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당신께서 이 폭풍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일에 신경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배짱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요나 1:15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다른 선원들은 요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너무 겁이 나면 사람들은 꽤 극단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폭풍이 멈춥니다.

요나 1:16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다양한 신들에게 기도하던 선원들은 요나가 섬기는 신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챱니다.

요나 1:17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에 밑줄을 치십시오. 이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을 삼키려면 물고기가 얼마나 커야 하는 지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켜지지 않았다면 익사했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없다면 짧고 지루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이 요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1 장에서는 세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1.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 십니다.
2. 요나는 이에 대응합니다 (도망).
3. 하나님은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2

2 장

요나 2:1-2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있는 곳입니다.

요나 2:3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본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히브리 문헌에서 물은 혼돈, 무질서, 공포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움직이면서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물은 혼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가 그렇게도 두렵고 위협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낳은 사고의 세계에서 절망적으로 물에 잠기는 것보다 더 무섭고 혼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2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요나가 처한 상황입니다.

요나 2:4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잘못된 인생의 선택을 했고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 2:5-6

**물이 나를 영혼까지 돌렸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

그의 신이 폭풍을 일으켰다고 가정한 후, 요나는 이 물고기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은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물고기는 요나 편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없었다면, 이것은 물에 빠져 죽는 겁쟁이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요나 2:7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순간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인식("기억")하고, 자신이 자란 공동체("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헌신을 하는, 신학적으로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요나 2:8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는 자신과 그의 공동체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약간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 2:9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전조입니다.

요나 2: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요나가 교훈을 배웠다고 만족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을 합니다.

그는 열정 넘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일을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1장과 2장의 개요를 써보십시오.

- 하나님이 부르시다
- 요나가 대답하다
-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 요나가 대답하다

토의할 질문:

- 물고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임을 인식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

3 장

요나 3:1-2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스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것은 1 장에서와 같은 부름입니다.

요나 3:3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스웨로 가니라 니스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여전히 생선 내장 냄새가 나는 요나가 1장에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요나 3:4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나의 하나님은 '저와는 다른' 이 도시의 사람들 모두와 제 지파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요나 3:5-8

**니스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베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스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굶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스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베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스웨 사회 전체가, 즉 왕에서부터, 귀족, 동물들까지, 모두가 똑바로 서서 올바르게 처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앗시리아에서 왕실의 선언이 “왕과 그의 귀족들”로부터 나왔거나 앗시리아에서 공개 애도 행위에 동물이 사용되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몇 세기 후에 그런 일을 했지만, 앗시리아인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저자가 앓시리아보다 페르시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실제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요나서의 저자가 이 사건들을 발생한 그대로 생중계하고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것이 다른 종류의 문학일까요? 이 인식은 우리가

요나서를 읽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쨌든, 다음으로 니느웨 왕이 말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요나 3:9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것은 한 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나 3: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물론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따라서 3 장은 1 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1.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2. 요나는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면서 응답합니다.
3. 하나님은 위험에 처한 사람(니느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4 장

요나 4:1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를 파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실이 요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1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아니었다면 물에 빠졌을 이 사람은 이제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구원 행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요나 4:2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요나서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에는 다섯 개의 1 인칭 단수 대명사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

"*나는* 아직 고국에 있었다";

"*나의* 나라(고국)";

나는 도망쳤다 ";

"*나는* 알았다".

이 구절은 요나의 이기심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생각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성경 공부인 "성경"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 풍성하신"이라는 구절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일곱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34:6; 느헤미야 9:17; 시편 86:15; 시편 103:8; 시편 145:8; 요엘 2:13; 그리고 요나 4:2**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이 구절들은 아마도 히브리어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히브리 공동체의 구전 전통에 존재했던 일종의 신조(creed)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기 34:6**에 처음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요엘서 2장 13절**에 처음 등장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는 그 어떤 문서보다 하나님의 백성 역사에서 훨씬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신학적 진술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 이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요나는 히브리 전통에서 항상 신이 행동하는 방식과 똑같이 행동한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이 구절의 끝에서 요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젠장! 그럴 줄 알았다고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넘치실 줄 알았다고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항상 배운대로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나서 요나는 발악을 합니다.

요나 4:3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멋지고 극적인 작은 울분.

요나 4: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물고기 먹이가 될 뻔한 놈아, 잠깐 이야기 좀 하지.

정말로 거기에 가고 싶은 거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하기로 하셨기에 요나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나 4:5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계속 짜증을 내며 도시 밖의 언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농락하기 시작하십니다.

요나 4:6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녕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였더라 요나가 박녕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이 그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면 기뻐합니다.

요나 4:7-8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녕쿨을 갹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또 한번 이기적이고 드라마틱한 울분을 내비칩니다.

요나 4:9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녕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또 한번 발을 동동 구르는 어린 아이처럼 굽니다.

요나 4:10-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넙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고집을 버려라, 이 물고기 밥이 될 뻔한 놈아."

그래서, 2 장에서와 같이, 여기 4 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 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 장과 2 장의 기본 개요와 3 장과 4 장의 유사점에 유의하십시오.

- 하나님이 부르신다.
- 요나가 응답한다
-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 요나가 응답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 대신 다른 이들을 구원하실 때, 그의 반응은 매우 다릅니다.

5

요나서가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거나 같은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실제로 "비둘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이고 비둘기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징입니다.

요나서에는 이스라엘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서에는 오늘날 다양성이 증가하는 한 나라에서 다수 종교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될 때 놀라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나날이 다양해지는 세상과 국가 속에서 장로교인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짓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특별히 도움이 되거나 신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교인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부름받았던 것과 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 정의를 행하고,
- 친절과 자비를 사랑하고,
-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도록 두는 것도 포함.)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분개하거나, 화를 내거나, 걱정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인내심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인 것은 장로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 신앙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토의할 질문:

창세기 9 장 13-16 절의 노아와 홍수에 대한 논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것은 성경에 언급된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과 모든 생명체 사이"에 맺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것이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가 6:8을 생각해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실천 방안

-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장로교적 인식에서 볼 때,
우리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부록 미국장로교 신앙 고백서와 규례서 출처

다 음에 나오는 내용은 성경 공부 시리즈 "왜 장로교인인가"에 나오는 장로교인의 믿음에 대한 주장과 미국장로교 헌법- 신앙 고백서와 규례서-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장로교는 *신앙고백서*를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지를 교회의 구성원과 세계를 향해 선포"해 왔습니다. (*규례서*, "미국장로교 체제의 기초", F-2.01) *신앙 고백서*의 문서들은 "종종 서로 상충되는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공통의 믿음을 확정"하고 있다 (F-2.02).

*규례서*는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교리에 근거하여, 지역과 전국 차원에서 장로교의 조직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록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장로교인이 장로교인인 이유" 성경공부 시리즈에서 장로교인에 대한 일반화가 미국장로교의 분명한 입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1. 성경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신앙 고백서의 어느 장이나 문장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발견하면, 그의 온유함과 기독교 자비를 위해 우리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우리는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입, 즉 성경에서 그에게 만족을 줄 것을 약속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가 틀렸다고 증명하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 서문에서 인용. 신앙고백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From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written by Rev. John Williams, Ph.D. Chaplain and Director of Church Relations Austin College, Sherman, Texas. Copyright © 2022 by the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in the Presbyterian Mission Agen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UKirk Collegiate Ministries.

[성경은]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형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BC 5.002

우리는 성경 해석이 성경 자체(성경이 기록된 언어의 본질로부터, 성경이 기록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유사한 구절과 다른 구절, 많고 명확한 구절에 비추어 설명된 것)로부터 수집된 정통적이고 진실한 것이며, 믿음과 사랑의 규칙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인류의] 구원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믿습니다.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BC 5.010

종교나 신앙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관습에 의해,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또는 오랜 처방으로 공의회 교부나 법령의 의견만으로 우리의 경우를 촉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BC 5.012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 구원과 믿음과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 속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선하고 필연적인 결론에 의하여 성경으로부터 추론될(deduced)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계시로든지 혹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에 추가될 수 없다. 그러나 말씀에 계시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BC 6.006

성경 해석의 오류없는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다양성이지만 하나임)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을 더 분명히 말하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BC 6.009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들어야 하고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시다.

바르멘 선언, BC 8.11

교회가 하나님의 이 유일한 말씀을 떠나서 또는 그것 외에 또 다른 사건들과 세력들, 형상들과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인 양 교회의 선포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고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짓 교리를 우리는 거부한다.

바르멘 선언, BC 8.12

하나님께서서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선교를 위하여 준비시키신다. 설교와 가르침이 성경에 충실하고 성령을 의뢰하는 가운데서 시행될 때,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게 된다. 메시지는 각각 고유한 정황에 처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전해진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설교와 가르침과 개인적 증언은 성경과 현대 세계인들에 대한 훈련된 연구를 필요로 한다. 공적 예배의 모든 행동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적합한 복종으로 응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1967년 신앙고백 BC 9.49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성과 올바른 판단으로 말씀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BO F-1.0203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문들은 교회 내의 부차적인 표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종속된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BO F-2.02

이 뿐 아니라, 좋은 성품과 원칙을 지닌 사람들도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진리와 형식이 있음을 믿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서로에 대해 상호 관용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단체의 의무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BC F-3.0105

2. 은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떠나버린 두렵고 무서운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을 찾아 그를 부르시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BC 3.04

세계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BC 3.08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자신의 창조와 구속에 대하여 그 어떤 영예와 영광도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기를 기꺼이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의 중생과 성화에 대해서도 그 어떤 영예와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을 기꺼이 거부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단 한가지의 선한 생각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 안에서 분에 넘치는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BC 3.12

3. 응답

복음은 우리는 선한 일의 원인이 우리의 자유 의지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주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신 일들을 일으킨다고 고백합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BC 3.13

Q.6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선행에 금생과 내생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까?*

A. *그 상급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Q.64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무관심해지고 악해지지 않겠습니까?*

A.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BC 4.063-4.064

문 86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합니까?*

A.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후 또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그의 유익에 대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도록 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도 그 열매로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BC 4.086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들을 무용하다고 물리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천거되어 있는 한, 우리 자신들을 그것들에게 적응시켜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만일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처리된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헛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솔한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BC 5.031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어떤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된다고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은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 창조되지도 않았고, 또한 그럴려고 믿음을 통해 중생을 얻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쉬지 않고 선하고 유용한 일들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BC 5.118

생명은 곧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선물이요, 용기를 가지고 추구해야 할 과업이다.

1967년 신앙고백 BC 9.17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화목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이다.

1967년 신앙고백 BC 9.31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거룩하기에, 교회의 구성원과 직제 사역을 맡은 이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BO F-1.0302

[개혁 전통의 큰 주제 중 하나는] 섬기고 구원받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BO F-2.05

4. 지성

물론, 이것은 타락 이전의 인간에게 있었던 지적 능력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고난 재능을 계발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들과 성공을 더하여 주신다.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BC 5.046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성과 올바른 판단**으로 말씀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BO F-1.0203

5. 바로 지금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미국장로교 간추린 신앙고백, BC 10.1.1

하나님은 주권적 사랑으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지으시어, 남자와 여자, 각 인종과 백성을 한 공동체로 살게 하셨다

미국장로교 간추린 신앙고백, BC 10.3.29-32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는다. 마치 젖먹이를 물리치지 않는 어머니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맞으러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미국장로교 간추린 신앙고백, BC 10.3.47-51

그러므로 서로와 함께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 제사장이 되어,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나누는 것이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BO F-1.0302

6. 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화목은 부요한 세계 안에 있는 노예적 궁핍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1967년 신앙고백 BC 9.46

교회가 남자와 여자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같이 사는 생활의 충분한 의의를 깨닫게 해주지 못하거나, 우리 시대의 도덕적 혼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베풀지 못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게 된다.

1967년 신앙고백 BC 9.47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말씀과
행위로서 가르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

미국장로교 간추린 신앙고백, BC 10.9-18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든 교리를 거부한다.

- 자연적인 다양성이나 사람들 사이의 사악한 분열을 절대화 함으로 교회의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됨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며, 또는 교회분열을 조장하는 교리;
-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양성을 이유로 실제로 서로가 격리되어 화해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결속으로 이러한 영적 하나됨이 진실로 유지되고 있다고 고백하는 교리;

- 참으로 귀중한 선물인 이 가시적 하나됨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부정하는 교리
- 명백하게 또는 은연 중에라도, 출신이나 다른 어떠한 인간적 혹은 사회적인 요소가 교회의 성도 자격을 결정하는데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리.

벨하 신앙 고백, BC 11.2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공의와 참된 평화를 가져다주고 싶어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 하나님은 불의와 반목이 가득한 세상에서 특별히 궁핍하고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 하나님은 억눌린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자신의 사역을 따라 행하도록 교회를 부르신다;
- 하나님은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신다;
-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자들을 지원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시고, 불의한 자의 길을 막으신다;
- 하나님에게 있어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생활은 고통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는 것이다;
- 하나님은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고 공의를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
-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어떠한 곤경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모든 형태의 불의에 대항해서 증언하고 맞서 싸움으로써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하나님의 것인 교회는 주님께서 서신 곳에 서야 한다—
즉 불의에 대항하고 부당한 학대를 받는 자들과 함께 서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해를 끼치려는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항하여 증거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념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한다.

- 여러 형태의 불의를 정당화하려 하고, 또한 복음의 이름으로 그러한 사상을 거부하지 않으려 하는 교리들을 정당화하려 하는 이념.

벨하 신앙 고백, BC 11.4

미국장로교는 미국장로교 회원인 모든 개인과 모임이 미국장로교의 예배와 운영과 새로운 삶 속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BC F-1.0403

[개혁 전통의 큰 주제 중의 하나는] 우상숭배와 폭력에 빠지는 인간 성향에 대한 인식. 이러한 인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변혁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는다는 것이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BO F-2.05

7. 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인간적 덕은 자기 이익과 적의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판명된다.

1967 년 신앙고백 BC 9.13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를 피하여 숨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며 거짓을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웃과 자연을 착취하며, 우리에게 맡겨 돌보게 하신 지구를 죽음에 직면케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공의와 자비를 베푸신다.

미국장로교 간추린 신앙고백 BC 11.4.33-40

8. 장로교인

총회가 소집된 이유는 자신들의 공적 신앙 고백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 주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할 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했지, 그들의 수가 많아서 과오를 범할 수 없다는 어떤 의견이나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판단하기로 이것이 총회가 모인 우선적인 이유이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BC 3.20

교회의 사역자들은 합법적이고 교회법인 선거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도록 하라. 이를테면 교회나 사역자의 선발의 목적을 위하여 교회가 대표로 세운 자들에 의해서 어떤 소동이나 불화나 적대심이 없이 정당한 질서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선택하도록 하라는 말이다.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BC 5.150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은 어떤 직분이 다른 직분을 지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 회중에게 위임되고 부과된 봉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바르멘 선언, BC 8.20

그리스도는 그의 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사를 교회에 주신다. 교회는 세상에서 공동체로서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은사를 나타내도록 힘쓴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BO F-1.0301

[개혁 전통의 위대한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 내의 질서에 대한 훈련된 관심을 그 특징으로 하는 언약의 삶이다.

장로교 정치의 기초, BO F-2.05

공의회에서의 결정은 토론과 분별의 시간을 거친 후에[...]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BO F-3.0205

9. 희망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불화와 미움, 갈등과 반목의 권세도 정복하셨다.
-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사회와 세상을 위해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들을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벨하 신앙 고백, BC 11.3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분명하게 알고 기뻐해야 한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BO F-.0301

10. 겸손

비록 하나님은 누가 당신의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며, 여기저기에 적은 수가 선택된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잘 될 것을 소망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았다고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BC 5.055

누군가 주님께 구원 받을 자의 수가 적겠습니까? 라고 물었을때, 주님은 소수나 다수가 구원이나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눅 13:24)고 권고하셨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네가 할 일은 이런 일에 대해 호기심을 품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곧은 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BC 5.056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세상에도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BC 5.137

우리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어디서나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시는 분이시다.

미국장로교 간추린 신앙고백, BC 10.52-53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복음에 호소함으로 그러한 강제적 분리를 합법화하려 하고,
순종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편견과 두려움과 이기심과 불신 때문에 화목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사전에 부인하는 가르침은 어느
것이라도 이념이며 거짓 교리로 여겨져야 한다.

벨하 신앙 고백, BC 11.3

미국장로교는 모든 영역에서 비기독교 종교 조직체들과의
대화과 이해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장로교는 모든 영역에서 타종교 조직체, 사람들과의 정중한
대화과 상호 관계를 나눌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를
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표징이요 이를 이루는 도구임을
믿기 때문이다.

운영체제, BO G-5.0102